함께

여름 2014

대전중부교회

Contents

COVER STORY

오늘도 우리는
여행을 꿈꾸고,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떠난다.
떠나온 그 길 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연들을 만들고 있을까
우리의 여행이
혹은 동행한 이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돌아옴을 전제로 한 것이 여행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그 길 위에 서야 하리라.
돌아올 제자리를 위해서라도.

표지 캘리그라피 윤지훈(늘푸른청년회)

2014 여름 Summer

■ **목양실 러브레터** 4

■ **시가 있는 풍경** 6

■ **특집 〈돌아오기 위해 떠난다–여행〉**

여행 인문학–여행에 대한 새로운 시선 10
먼 여행, 내가 찾아간 광야 14
가까운 여행, 특별한 깨달음 20
테마가 있는 가족 여행 26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사모 목장 30
지금 선교지에서는 34
주찬양단 38
멀리 멀리 갔더니 42
장학사업부 46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우리 이웃 동아리 **48**
우리 이웃 방앗간 **52**
칭찬 릴레이 **56**

■ **중부 그루터기**

포토 에세이 **62**
나의 삶 나의 신앙 **64**
사모의 글 **68**
이런 일 저런 일 **70**
내 솜씨 우리 가족 **75**

함께12호_2014 여름

발행일 | 2014년 7월 19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인 | 심재성
기자 | 김용수, 신신혜, 이은희, 박진화
디자인 | 박나래
캘리그라피(표지) | 윤지훈
발행부서 | 문서홍보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영원한 세 가지 진리

글 · 조상용 담임목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 : 8

'다원화'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한 가지 것에 매이지 않고, 자기 취향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성끼리만 결혼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성연애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원화 현상이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 오면,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특정 종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는 결국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진리를 상대화 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음모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세 가지 진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나를 깨운다

이성부

문득 먼데 하늘 바라보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주섬주섬 배낭을 꾸린다
허둥거리는 시간을 하나씩 잡아 포개어 넣고
끈을 조이고 나면 긴장의 등짐 하나
나를 밖으로 떠다민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산에 들면서부터
숲이 내 키를 높여주면서부터
길들은 눈 크게 떠 손을 내민다
초록 옷 입은 길들의 몸을 따라가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할 일
그대로 두어 잠들게 하고
참을 수 없는 사연들
저절로 물 흘러 떠내려가느니

이성부 시인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비롯해 산과 산행(山行)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시집으로 〈이성부 시집〉, 〈우리들의 양식〉, 〈빈산 뒤에 두고〉,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 등이 있다.

여행을 떠나요!

혼자서도, 둘이서도, 친구와도, 가족과도
그 누구라도 갈 수 있고
당일로도, 몇 일으로도, 몇 달로도
허락된 시간 그 언제라도 좋으며
도시 근교도, 산도 들도 바다도, 국내도, 국외도
그 어디라도 가고픈
여행!

서점엔 여행서적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고
TV에서는 여행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는
지금은 바야흐로 여행의 시대이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기나긴 여행이기 때문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여행을 좋아하고
또 저마다 멋진 여행을 꿈꾼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여행
그 여행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번 호 특집으로 만나보자!

여행에 대한 새로운 시선

글·편집부

여행의 역사

여행을 뜻하는 'Travel'은 고생이나 노동, 고통 등을 의미하는 'Travail'과 같은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여행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뜻하는 단어,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는 사람', 'Tourist'가 나타났다.

'관광객(Tourist)'은 19세기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럽을 유람하던 영국의 젊은 귀족을 말하는, 여행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내포한 말이었다. 그리고 철도가 생기면서 여행의 특권은 관광이라는 상품으로 바뀌었고, 지금과 같은 패키지 여행도 생겨났다.

최초의 여행사였던 침례교 순례 선교사 토마스 쿡은 술집이나 알코올을 대신하는 '건전한 오락'을 노동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값싼 표'로 단체여행을 조직했다. 쿡이 만든 단체여행엔 식사와 숙박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과 교양이 아니라 돈과 휴가였다.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와 시민들은 다음 노동을 위해 쉬어야 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사실 여행이 아니라 휴가였다. 당시 '휴가'는 '허락받아 떠나는 여행'이란 뜻이었다. 허락받아 떠나는 여행은 여러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짧은 시

간, 자신의 쉼을 위해 달려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아름다운 풍광을 구경하고(Sightseeing), 돌아와 다시 일해야 하는 관광객(Tourist)이 세계의 길들을 채우기 시작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영국에서 시작된 대중관광, 패키지 관광의 물결은 영국을 넘어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대중관광을 통해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 그에 맞는 경제적 여유, 또 새로운 경제적인 꿈을 찾으려는 욕망이 사람들의 여행 욕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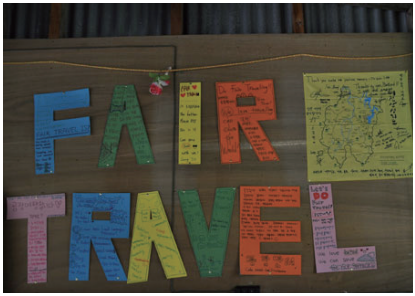
성직자, 군인, 정치가가 아니면 여행할 수 없었던 '특권으로서의 여행'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만인의 여행'으로 내려섰다.

여행의 현실, 관광의 그늘

1912년 버스, 자동차 여행의 시대가 열리자 '만인의 여행'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1981년 프랑스의 고속열차 '떼제베'가 시속 331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선 속도의 세계를 열어 주었고, 1969년 최초의 음속비행에 성공한 콩코드가 비행기 여행의 시대를 열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를 보면 2010년 국제관광객은 9억 4,00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앞으로 매년 평균 3.3% 증가, 연 4300만명씩 늘어나 오는 2030년에는 18억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행하고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15%일 뿐이며, 여행자들의 30%는 G7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만인의 여행 시대'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 각광받는 3세계 나라들의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관광 산업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은 여행객이 타고 온 비행기와 다국적 호텔을 통해 여행객의 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여행의 역사

1970년대 교회와 인권 그룹 등은 3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넘어 현지에 뿌리내리는 주민운동, 빈민운동, 인권운동 등의 경험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정의를 회복해 가는 여행자의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관광산업 감시운동과 사회적 책임여행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윤리적 여행, 대안적 여행 등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공정한 무역으로서의 여행'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여행할 때 쓰는 돈이 다국적기업을 통해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 살아온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며,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 평등성이 보장된 개발과정의 정의까지 내포한 넓은 의미에서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여행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면서 여행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

국을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등 주요 여행 소비국에서 책임여행, 공정한 무역으로서의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시선

관광은 여행을 상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공정여행은 여행을 '소비'가 아니라 '관계'로 보는 여행에 관한 새로운 시선이다.

이제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 우리의 여행을 통해 숲이 지켜지고, 사라져 가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여행,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험하는 여행, 여행하는 이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이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여행, 쓰고 버리는 소비가 아닌 관계의 여행인, 공정여행(Fair Travel)을 다 함께 고민할 때이다.

『희망을 여행하라』(임영신 • 이혜영, 소나무, 2009) 발췌

공정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01 **지구를 돌보는 여행** 비행기 이용 줄이기, 1회용품 쓰지 않기, 물을 낭비하지 않기

02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여행** 직원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을 지키는 숙소 • 여행사를 선택하기

03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행** 아동 성매매, 섹스관광, 성매매 골프관광 등을 거부하기

04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가이드, 교통시설 이용하기

05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과도한 쇼핑 하지 않기,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지나치게 깎지 않기

06 **친구가 되는 여행** 현지 인사말을 배우고 노래와 춤 배우기, 작은 선물 준비하기

07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생활 방식, 전통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

08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행** 사진을 찍을 땐 허락을 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여행

09 **기부하는 여행** 나눔을 준비하자.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10 **행동하는 여행**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

내가 찾아간 광야는 즐겁습니다

글 · 최요셉 목사(1교구)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셔서 20년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모태신앙이겠죠?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을 일컬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 예외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저에겐 여행이었습니다. 신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여행은 단기선교입니다. 방학 중에 1주일 이상 국내 낙도와 오지 선교, 또 한주는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사역을 배우고 영성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한 광야라면 그건 힘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내가 좋아 찾아간다면 그건 즐거움이요, 자신을 위해 매우 유익한 투자일 것입니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긴 여행은 신대원 2학년 때 휴학하고 이스라엘 키부츠(kibbutz)에 다녀온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후 바로 신학을 시작하고 이어 신학대학원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졸업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된다는 생각에 한번쯤 사역을 돌아보고 다시 충전해야 할 계기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랜트해서 여행중 친구들과 직접 식사를 하는 장면

키부츠는 1909년 이스라엘 시오니즘 운동 중에 최초로 탄생된 이스라엘의 집단거주지를 뜻합니다. 키부츠에서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에서 집단이 소유 • 관리하는 자산을 운영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의식주와 교육도 집단적으로 관리되지만 개인생활은 자유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경지대에 많고 군사 • 경제적으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과 분쟁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적인 곳에 집과 살 터전을 마련하고 군대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켜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흩어진 유대인)를 이곳에 초청해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런 키부츠가 이스라엘 전역에 약 200여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47개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발룬티어(volunteer.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정도가 발룬티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을 일주일 여행한 것과 한두 달을 생활한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현지 사람과 교류하고 기후를 느끼고 현지 음식을 먹으며 성경 속에 가나안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나라와 터키로 넘어가 유럽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짜주는 양의 젖을 받는 모습

을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텔아비브 디젠코브 호스텔에서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났고 함께 사역하자는 부탁을 받아 힘들지만 함께 동역하기 시작하였지만, 제가 가기로 한 키부츠와는 2시간 이상의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매 주일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 히치(히치하이크. hitchhike)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11시 예배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들과 나눔도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키부츠는 정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첫째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마얀지브 키부츠에서는 스웨덴, 독일, 캐나다, 영국 등에서 온 친구들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이 오고 한국 남자는 군제대 후 복학 전, 여성은 대학졸업 전후로 많이들 옵니다. 이렇게 두세 달을 함께 일하고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면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귄 친구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유럽을 여행할 때 더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부츠에서는 언어에 대한 감각과 필요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키부츠의 공통언어는 영어입니다. 보통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4개 국어 정도를 구사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지리적으로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인접하여 있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노라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감각을 키울 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외국 친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 집니다. 보통 키부츠는 2,3천 명 정도의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제가 있던 마얀지브 키부츠는 안경렌즈를 만드는 공동체였습니다. 수천 명이 생활하고 모든 일을 분업하다 보니 모든 일이 공장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가정에서 세탁, 음식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발룬티어 라고 합니다. 발룬티어들에게는 키부츠에 거주하는 동안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용돈개념으로 100달러 정도의 돈을 지불합니다. 두세 달에 한번 발룬티어 여행이라고 해서 2박 3일 여행을 무료로 시켜줍니다.

또한 한 달에 3일 정도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주 5일 일하는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만 일을 도와줍니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요리주방장이 너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만 있어라 부탁을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식자재는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으라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여행 중 이동은 히치를 많이 합니다. 히치는 달리는 차를 잡아 같은 목적지가 같으면 얻어 차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히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대중교통(기차, 버스 등)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택시와 승합차(쉐르트) 정도가 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키부츠에는 저와 같은 한국청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버티고'라는 펍(Public House)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이곳에서는 여행정보와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발룬티어들은 더 끈끈한 애정이 있습니다. 누가 요청을 해도 키부츠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와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갈릴리를 여행하겠다 싶으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발룬티어를 찾아 부탁을 하면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있어 무료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부츠에서 받은 돈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에 충분합니다. 키부츠에는 발룬티어가 있고 워커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은 워커들이 합니다. 보통 중국, 태국 사람들이 하죠.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비슷합니다. 이미 이들은 수년간의 이국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키부츠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다른 일(건축, 접시 닦기, 이삿짐 나르기, 페인트 칠하기 등)을 나갑니다. 키부츠 생활이라는 것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들의 천국이긴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지루하고 건조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락과 함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잘못된 문화로 고통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전일이라고 해봐야 그리 힘들지 않는 일이기에 항상 중국 친구에게 나도 함께 가자고 부탁을 자주 했고 함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일하면 이집트와 요르단을 여행할 경비가 생기고 한 달을 일하면 유럽을 웬만큼 여행할 경비가 생깁니다. 비행기 경비만 가지고 가도 5,6개월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키부츠를 통한 마지막 유익은 바로 이스라엘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경의 성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기후를 알 수 있고, 식물들을 보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여행일 뿐입니다. 가장 빨리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지인과 교류와 그곳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에게 직접 듣는 것입니다. 키부츠에 있으면 그들과 살 수 있습니다. 가족애가 생깁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 봉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집을 공개합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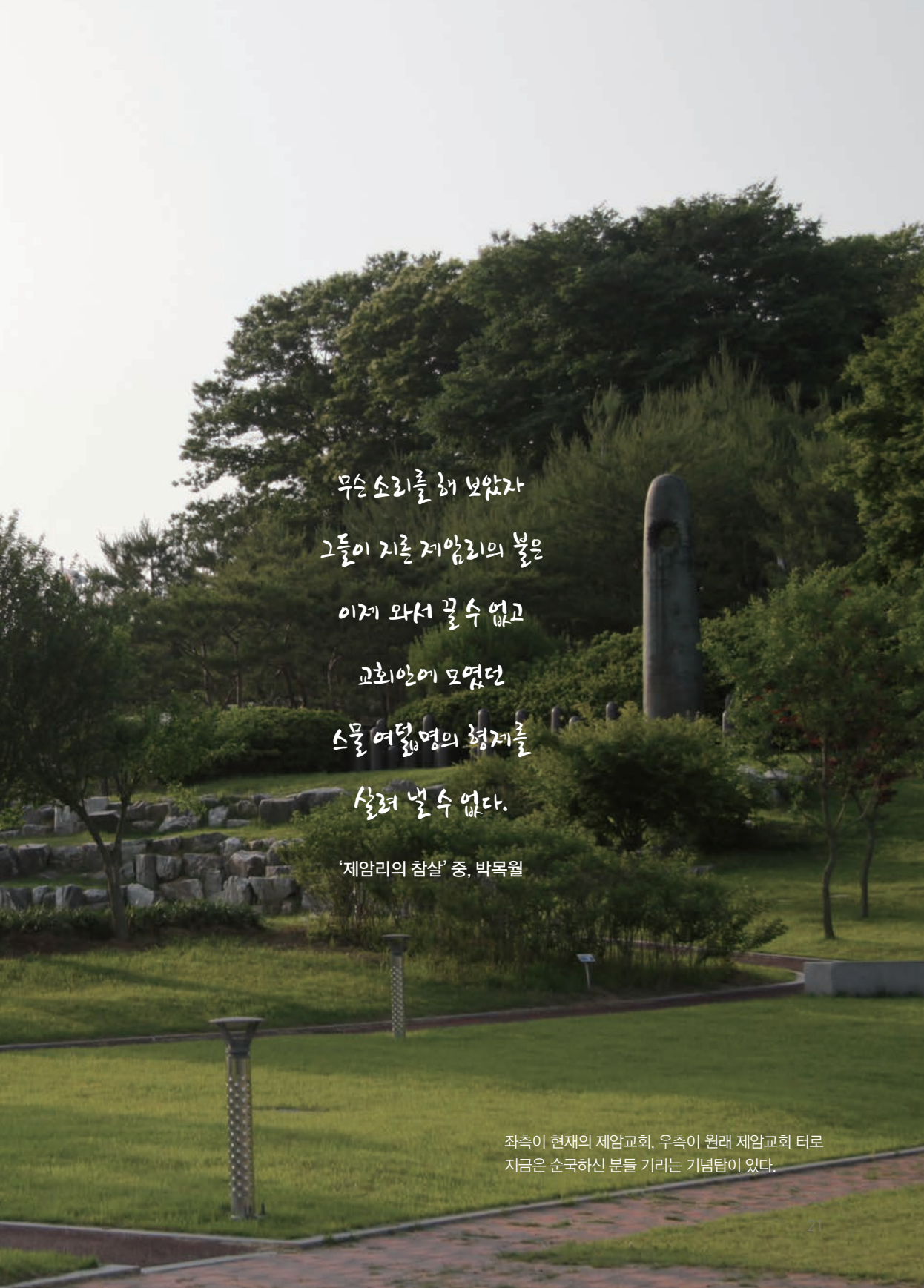
저는 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모르는 길도 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면 생면부지의 선교사님이나 교인에게 전화해서 숙박을 부탁드리고 삶속에서 주는 교훈을 많이

한국친구들끼리 랜트해서 지도를 보며 이스라엘 전국을 여행

배웠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평생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 이스라엘 키부츠에 다녀와서 평생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이런 사진 찍었다.'가 아니라 그곳에 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추억이 있는 여행입니다.
제가 선교사역국 담당이어서 홍보 좀 하자면 이번 여름 몽골 단기 선교가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후반기에 중국비전트립, 겨울에 태국단기선교는 또 다른 삶의 은혜로운 추억을 줄 것입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고, 돈이 있으니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니 건강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어떤 광야로 보낼지 묵상해 보세요. 내가 찾아가는 광야는 즐겁습니다.

용서는 화되 잊지는 말자

글 · 김용수 기자



좌측이 현재의 제암교회, 우측이 원래 제암교회 터로
지금은 순국하신 분들 기리는 기념탑이 있다.

일제의 방화와 살육으로 폐허가 된 제암리 마을

휴일을 맞아 경기도 화성 제암교회를 찾았다. 오래 전부터 가슴 한 켠에 남아 있던 그 아우성을 찾아 이제는 도시화 되어가는 옛 땅을 찾았다. 구십오 년 전에는 초가집과 논밭으로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의 목가적 풍경이 이제는 수십 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서고 왕복 육 차선의 도로에는 바쁘고 지친 자동차들이 고속질주하는 땅이 된 제암리를 찾았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 독립만세운동이 불길처럼 휩쓸던 때에 화성 땅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월 이십팔일 사강 장터 곳곳에서 만세시위를 위한 소요가 일자 일본 경찰은 총을 쏘며 군중을 헤치고 남양으로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일경 노구찌가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지고 몽둥이에 맞아 죽게 된다. 제암교회 사건은 수원, 화성 주민들의 삼일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보복 응징으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결정판이다. 일본 육군 보병 칠십구 연대 아리타 중위의 지휘아래 제암리에 살았던 순사보 조희창, 발안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일본인 거류단장 사사카의 안내로 제암리로 들어와서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주민들을 제암교회 예배당에 가두고 사격을 가하면서 방화하여 이십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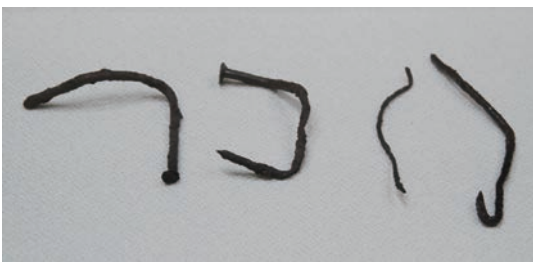
인이 희생되었다.
제암교회 만행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리타 중위 부대는 제암리 주민 가운데 성인 남자(십오 세 이상)들을 교회에 모이게 했다.
2. 미리 명단을 파악한 듯 오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불러 왔다.
3. 아리타 중위가 모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묻자 '안'(안종후 권사로 추정) 이란 교인 대표가 대답하였다.
4. 아리타 중위가 사격 명령을 내렸고 교회당을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이 창문을 통해 사격했다.
5. 사격이 끝날 무렵 짚더미와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6. 바람이 세게 불어 교회 아래쪽 집들에 옮겨 붙었고 위쪽 집들은 군인들이 다니며 방화했다.
7. 교회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사람이 사살 당하고 '노경태'는 끝까지 산으로 탈출하여 살았다.
8. 마을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온 강태성의 아내(십구 세)가 군인들에게 살해 당했다.
9. 군인들이 이웃마을 고주리로 가서 천도교인 여섯 명을 총살했다.

당시 불에 탄 제암교회 터에는 이십삼 인 상징 조각물이 있고, 지금의 제암교회는 세 번째 지은 교회이다. 아담하고 단아하게 지은 교회에 앉아 짧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제암교회 만행을 참회하는 일본인들이 모금을 하여 일천구백칠십 년 새로운 교회를 지었지만 그 교회는 삼일정신교육관을 지으며 없어졌다. 그 교회를 원형 그대로 정신교육관으로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과거의 흔적을 없애는데 너무 심사숙고 하지 못한 면이 많다. 오래 된 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가치에 따라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애국청년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맹서를 하느님과 조상 앞에 쓴 혈서

제암교회 일층(제암리 삼일운동순국기념관)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고증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나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 한 몸 돌보지 않고 나라에 몸 바쳐 만 번 죽더라도 앞으로 나갈 것을 하느님과 조상에 맹세하노라"고 혈서를 쓴 어느 청년의 글이었다. 많은 우국지사가 이런 맹세를 하고 험하고 거친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을 위해 굳건히 결심합니다.....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글을 혈서와 함께 일본 천황에게



▲ 일제의 방화와 살육이 있기 전의 평화로웠던 제암리 마을

◀ 제암교회에서 방화로 소실 된 후에 남은 못, 밖에서 문을 봉쇄하여 무차별 사격과 방화 시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제암교회 만행을 반성하며 참회하는 뜻으로 성금을 모아 1970년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었다. 하지만 후에 이 교회를 철거하고 3.1정신교육관을 세웠다.

전시관 내부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료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방화 소실된 옛 교회 터 옆에 최근 새롭게 지은 제암교회 내부의 단아한 모습

제암교회에서 희생당한 23인의 합장 묘, 제암교회 터 위에 있다.

제출한 청년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상황에서 상이한 행동이 나온 예는 많지만, 그 가치는 결코 뒤바뀔 수 없는 것이리라.

과거 크리스천은 민족의 개화와 독립에 앞장서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등 약자의 편에서 예수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메를로 퐁티는 "우리는 순진무구함과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휴머니즘과 폭력)고 했다. 나 역시 일제의 폭력을 고발하고 분노하지만 나의 가족, 이웃, 약자에게 스스로 합리화 시킨 폭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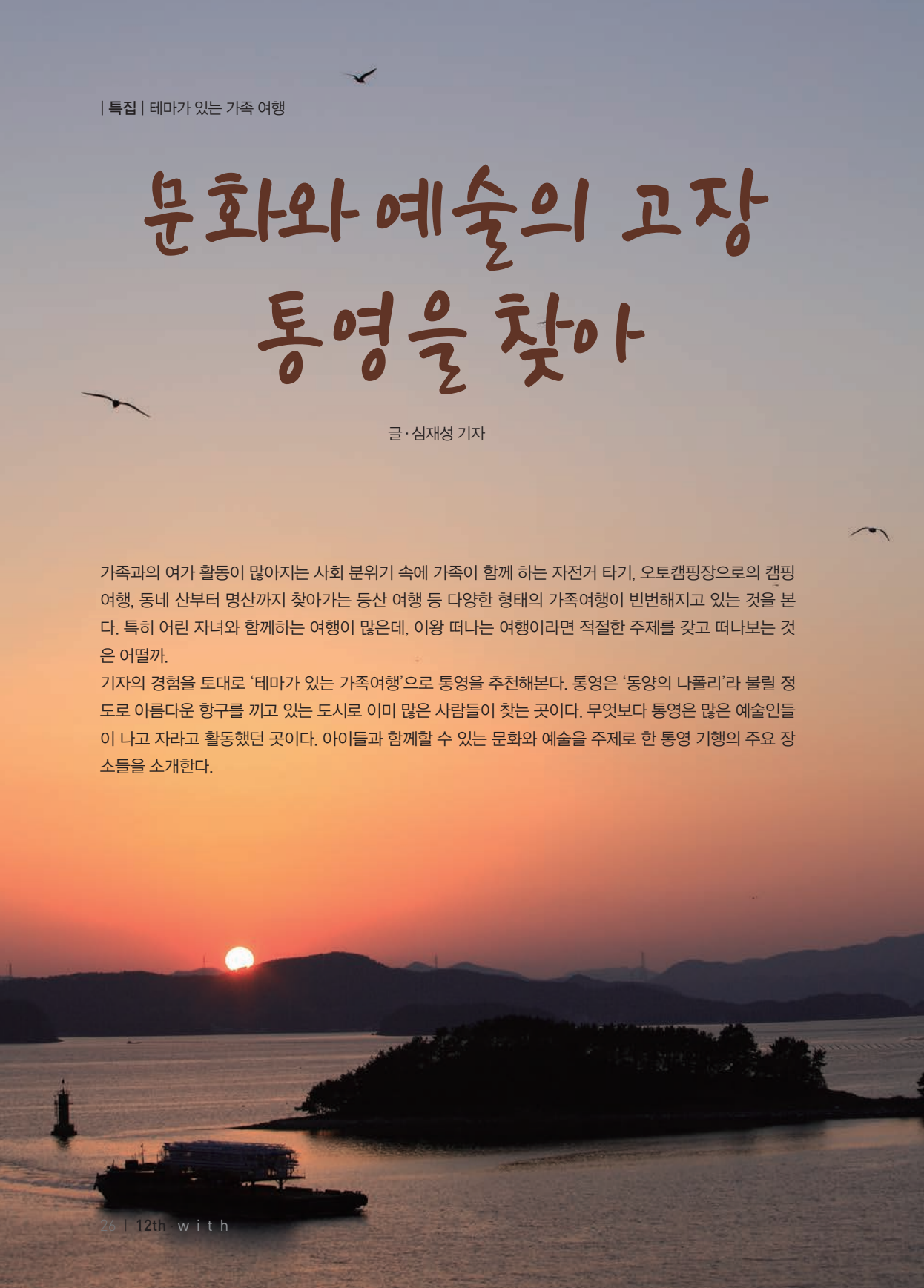
짧은 시간에 다녀 올 수 있는 성지 또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주변에 많이 있다. 가족, 이웃과 함께 미리 공부하고 다녀보면 정체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도 갖게 되리라 생각한다. 또 다른 제암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 되새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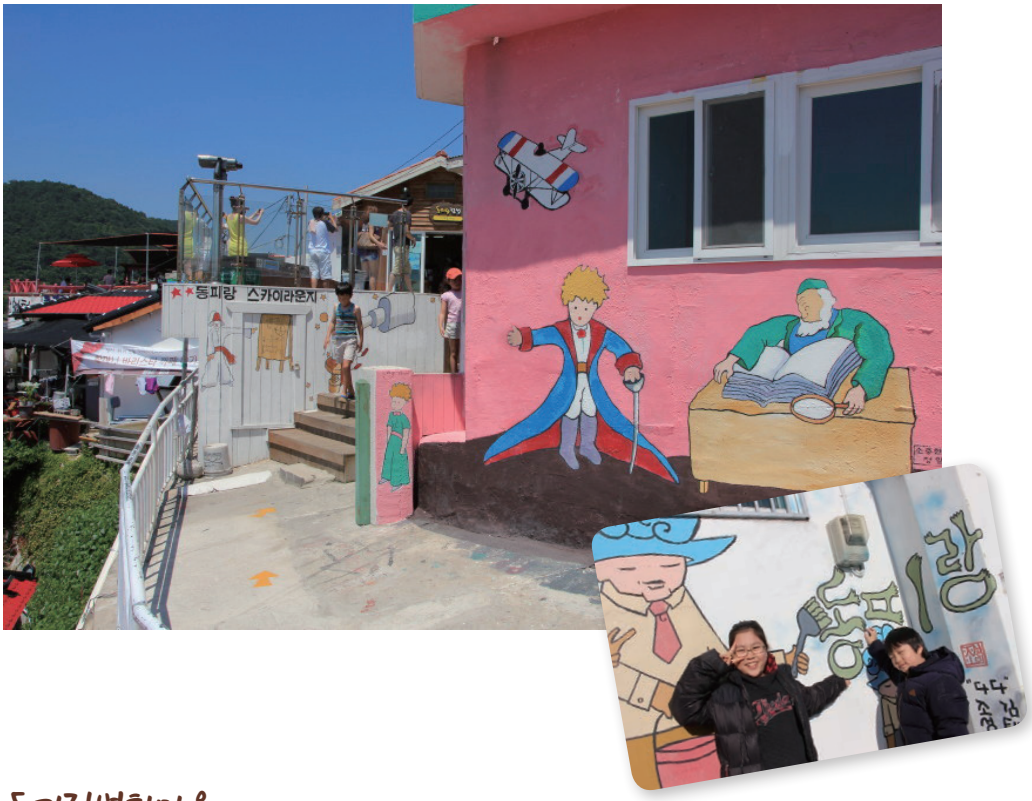
문화와 예술의 고장 통영을 찾아

글 · 심재성 기자

가족과의 여가 활동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가족이 함께 하는 자전거 타기, 오토캠핑장으로의 캠핑 여행, 동네 산부터 명산까지 찾아가는 등산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여행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본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이 많은데, 이왕 떠나는 여행이라면 적절한 주제를 갖고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기자의 경험을 토대로 '테마가 있는 가족여행'으로 통영을 추천해본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무엇보다 통영은 많은 예술인들이 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곳이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통영 기행의 주요 장소들을 소개한다.





동피랑벽화마을

동쪽의 벼랑이란 뜻의 동피랑 마을은 철거대상이었던 곳인데, 시민단체에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사라질 뻔했던 마을이 발상의 전환으로 재탄생된 벽화마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통영중앙시장에서 올라가면 강구항을 낀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 하여 아기자기하게 그려진 벽화들을 아이들과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이야기꽃도 피울 수 있다. 시간은 넉넉히 잡아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윤이상기념공원

윤이상기념공원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념하여 그의 발자취와 음악을 테마로 생가 터에 조성한 기념공원 및 기념관이다. 윤이상은 동양의 정신이 충만한 독특한 색채의 선율로 현대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생전에 '현존하는 현대음악의 5대 거장'으로 꼽혔다. 공원은 독특한 경사광장으로 조성되어 쉼터가 되고 있고, 기

념관에서는 윤이상의 음악 세계와 삶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목요일은 휴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전혁림미술관

통영 봉평동 주택가 사이에는 '빛의 마술사'라 찬사 받는 화가 전혁림의 미술세계를 볼 수 있는 전혁림미술관이 있다.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전혁림 화가는 독특한 색감으로 한국의 추상화를 개척한 서양화가이다. 미술관은 화가가 생전에 살던 곳으로 건물 외벽이 작가의 작품을 재구성한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 미술관 전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이다. 전시관에서는 통영 바다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색감을 지닌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월, 화 휴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박경리기념관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항하는 항로의 중심지점으로서 그곳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만큼 바다 빛은 맑고 푸르다."소설가 박경리의 소설『김약국의 딸들』도입부에 나오는 통영에 대한 표현이

(왼쪽부터) 윤이상기념공원, 전혁림미술관, 박경리기념관

다. 구한말부터 근 • 현대까지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민족 대서사시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통영에서 나고 자랐다. 박경리기념관은 그런 작가의 작품 세계와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기념관 뒤 쪽 언덕에는 박경리 선생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휴관일은 월요일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그리고...

위에 소개한 곳 이외에도 통영에는 '깃발', '바위'등의 시로 유명한 시인 청마 유치환을 기리는 '청마거리'와 '청마문학관'이 있으며, '꽃'의 시인 김춘수의 유품을 전시하는 '김춘수유품전시관'도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그림 〈황소〉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은 이 곳 통영에서 〈소〉 연작을 비롯한 대표작들을 그렸기에 지금도 통영은 그를 기리고 있다.

이렇듯 통영은 많은 문화 예술인을 길러낸 예향(藝鄕)의 고장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문화 예술을 테마로 한 여행지로 적격이다. 물론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좋고,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찾아 한산도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 통영꿀빵과 충무김밥의 별미를 맛보는 것도 빠질 수 없으니 이러한 것들 또한 곁들여 함께 일정을 짜본다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될 것이다.

은혜로운 수다
사모목장을 만나다

글 · 신신혜 기자

유쾌한 수다! 은혜로운 수다! 삶으로의 수다!
사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 엄마인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녀들을 바로 "사모"라 칭한다.

햇살 넉넉한 시간 사모들의 목장예배가 드려지는 조미옥 사모님 댁으로 향한다. 사모님들의 목장모임은 여느 목장과는 다르게 조금은 무거울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모임장소가 가까워질수록 어디선가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게 아닌가? "띵동"밝은 모습으로 조미옥 사모가 반겨주면서 문을 여는데 그 웃음소리는 그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엄숙할 거란 나의 짧은 생각은 기분 좋은 산들바람을 맞이하는 듯 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5명의 사모님들! 그 중 대장(?)인 김혜경 사모는 "어머~ 잘 왔어요."하면서 인사를 먼저 건네며 편안하게 맞아주셨다. 사모의 모임은 참 편안해 보였다. 무거움도 엄숙함도 아닌 여느 목장나눔 보다 더 서로를 보듬어 주며 격려의 말로 소통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수다! 유쾌함이 넘쳐나는 수다!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

이 나오면 여느 엄마들의 나눔과 수다와 같아진다.

“어머! 어머! 그랬어요? 힘들지. 그럼 아이들 그렇잖아~ 호호호 그랬구나~ 꺄르르~~ 괜찮아~~ 그럼 그럼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아휴 고마워라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시지~ 호호호~~”

이어지는 유쾌함 속에 수다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녀들의 에너지를 샘솟게 하고, 서로의 나눔은 웃음으로, 웃음은 그녀들만의 수다로 이어지고 있었다. 엄마라는 말이 행복하다는 사모들. 사모들도 엄마이고 아내이기에 겪는 일도, 헤쳐 나가는 일도 다름이 없음을 알았다.

두 번째 수다! 은혜로운 수다!

김혜경 사모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나눔으로 이어져간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기도 속에서 보이는 그녀들만의 은혜로운 수다가 이어져 간다. 사모들의 모임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교회의 각 모임, 행사에 관련된 나눔으로 이어져 간다. 좀 전에 유쾌한 아줌마들의 수다는 간 곳 없고 사모로서 섬겨야 될 일들과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나누면서 중보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알았다.

사회, 경제, 단기선교와 관련된 나눔에서 이어져가는 기도는 그녀들만의 은혜로운 수다로 귀하게 다가왔다. 말씀 가운데 협력하며, 서로의 기도 속에서 보이는 그녀들만의 은밀한 기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의 장임을 알았다.

세 번째 수다! 삶으로의 수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래 그래 맞아~ 그렇지 힘

들거야~ ”

사모라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은 길일 것이다. 교인들의 시선. 그리고 사모이기 전에 부모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사모로서 섬겨야 되는 부분과 참고 이겨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커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모들…….

자녀들이 혹여 라도 다른 아이들과 마찰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면도 사역자의 자녀들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단다. 힘든 일들이 있으면 서로를 보듬어 주고 격려의 말속에 소통함이 있음을 알았다.

나눔에서 서로의 공통된 사모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녀들~ 삶으로의 수다는 그런 사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며 힘들고 지칠 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알았다. 사모모임은 그 자체가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모임 속에서 신실하신 그 분의 말씀 가운데 협력하는 귀한 모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흐르고 있음을 느낀다.

다섯 사모의 한 마디!

사모목장의 든든한 버팀목

김혜경(조상용 담임목사.사모)

사모라는 공통됨 안에서 성도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나눔으로 의지하고 기도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모임입니다.

넉넉함이 묻어나는

김선희(심태선목사,사모)

사모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돈독해지는 모임이에요.

미소가 부드러운 이진영(이석원목사,사모)

사모 모임은 "가족"모임이죠. 서로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살림, 육아까지 늘 아낌없이 돌봐주는 가족 같은 모임이랍니다.

조용함이 아름다운

이정선(최철귀목사,사모)

타 교회에는 사모목장이 없어요. 이곳에 와서 사모들만의 목장이 있어서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단아함이 흐르는

조미옥(최요셉목사,사모)

'위로'의 목장모임. 교인들과 섞이기 힘든 위치이기에 사모목장을 통한 서로에게 귀한 모임이에요.

태국 남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글 · 임태호,이선화 선교사

저희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핫야이'입니다. 국경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찾아 방문하기에 관광과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핫야이 시내에만 150여 개가 넘는 호텔이 있고, 수많은 상점들이 줄을 이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로부터 이 지역은 큰 범선들이 오가는 항구가 지금까지 있어 해산물 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핫야이 경제의 중심에는 많은 수의 중국계 화교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 태국의 원 주민인 태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계 화교들은 일찌감치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상업과 고무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태국인들도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이지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종교는 이슬람, 불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및 기타 종교들이 혼재합니다. 특히 이슬람은 태국 남부의 주 종교로 태국의 이슬람의 99%가 태국 남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쏭클라도 주변의 4개 도는 99% 이상이 이슬람교도들입

핫야이 시내 전경 사진입니다.

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쏭클라도도 역시 70-8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핫야이에 살고 있는 인구는 공식적으로 30만 명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약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부의 대부분의 도에서 직업과 학업 등등의 이유로 이사해온 사람들과 특히 태국 북동부와 미얀마에서 일거리를 찾아 들어온 외지인들, 그리고 저같이 외국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교회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재 핫야이에만 약 20여 곳의 교회가 개척되어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교회가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인 수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큰 기독교 연합 행사의 경우 대부분의 교회가 동참할지라도 채 500 명을 모으기가 힘든 편입니다. 핫야이에 100만 명의 사람들 중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천 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곳 핫야이에서 싼띠팝핫야이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 아가페국제학교 처음에는 저희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홈스쿨이었는데, 태국인, 태국에 사는 외국인, 그리고 한국에서 신앙과 학업을 위해 유학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학교가 되었습니다. 현재 9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외부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 태국인들이 파트타임 학생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고, 미국의 문교부 인정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인허를 받은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장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싼띠팝 핫야이 교회 전면 모습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하였고, 아직 건물 대금을 다 치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대금을 다 치르면 교회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목요일과 금요일에 케어그룹이라고 하여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각 집을 매주 돌아가며 찾아가 거기서 같이 음식도 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4 주일 성경공부 싼띠팝 핫야이 교회는 철저하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교재 한 권을 끝내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면 교우들이 둘씩 짝을 지어 성경공부를 합니다.

5 주일 예배 모습 최근 들어 주일 예배에 평균 30–40 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인 전도사님께 교회를 이양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복음전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 양성을 위해 아가페국제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외 현지인 및 외국인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훈련원과 트리니티 신학대학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약한 모습이지만 장래에 이 사역들을 통해 자라난 사람들이 만들어낼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성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소망하기는 현재 사역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이 사역들에 동참할 주님의 사람들이 속히 와서 동역하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남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주님의 선교에 한 편 힘을 보탤 수 있는 사역들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처음부터 믿음으로 길러 주시고, 16년 전 처음 태국 선교를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동역해 주시고 계신 중부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안을...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 된 주찬가족입니다.

주찬양단, 우리는 찬양의 힘을 믿습니다!

글·하우진 전도사

샬롬!
주찬양단의 찬양인도와 막내를 맡고 있는 하우진 전도사입니다!^0^
저희 주찬양단은 교회 내에서 아이노스 찬양단과 함께 장년부로 구성된 찬양단(단장:임춘화)입니다. 저희는 주일 오후예배와 기도의 십일조, 부흥집회 등의 찬양인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부터 주찬양단의 찬양인도를 섬기게 되어 주찬 가족이 된지 6개월 된 신입단원인데요. 나이도 제일 어려 찬양단의 평균 연령을 줄이는 아주 귀여운(?) 막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항상 멀리서 주찬양단의 찬양과 섬김을 바라만 보다가 함께 주찬가족이 되어보니 너무나 귀한 만남과 축복의 자리임을 느끼며 지난 6개월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찬양단은 찬양단의 이름과 같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 서야 하는 쉽지 않은 찬양의 자리, 모두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좀처럼 쉽게 섬길 수 없는 헌신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주찬 가족의 모습들은 정말 교역자로서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엔 힘이 있고 큰 능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찬양할 때 열리지 않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찬양할 때 상했던 마음도 치유를 받고 회복됩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도 떠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이 기뻐하고 평안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주찬양단과 함께하면서 이 고백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찬 가족의 고백과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찬양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어둡던 표정들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과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란 말보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찬양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주찬 가족 모두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찬양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드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고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큰 목적이죠. 저는 우리 주찬양단이 목소리로만 찬양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6개월 된 신입단원으로서 우리 주찬 가족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단이라고 감히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주찬양단을 통해 찬양의 힘을 느낍니다.

이렇게 찬양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주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찬양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찬 막내 하우진 전도사였습니다. 모두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단

지도 하우진 전도사　　**단장** 임춘화 집사

하우진(지도전도사)

주찬양단과 함께함은 '설레임'입니다. 주찬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찬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저를 설레게 합니다.

임춘화(단장.집사)

'주찬'말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입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찬양 드리기를 기원하는 찬양단입니다.

홍순영(단원.장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였고 앞으로도 순종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비난이 있을지라도 복 받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계속 할 것입니다. 뜻있는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복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은영(회계.집사)

늘 연약한 저에게 주찬 가족과 함께 찬양을 사모함으로 드릴 때 회복과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민수(단원.집사)

'주찬'을 통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연옥(단원.집사)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은 내 삶의 그림자 같은 동반자입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의 강가에서 맘껏 헤엄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강미자(단원.집사)

찬양하는게 좋기 때문에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경희(단원.집사)

내가 찬양할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미소를 상상하면 저 또한 기뻐집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만 위해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태국의 99%의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

글 · 김도형 선교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태국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가족의 삶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던 2004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2006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여름 방학을 통해 세 번째 태국단기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인 홍주희사모(당시 서울목동제자교회 반주자)를 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서울에 있는 두 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2010년 가을 목사안수를 받고, 전주양정교회(박재신목사 시무)에서 태국장기선교사로 파송을 약속받고 전주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양정교회에서의 사역은 선교사로서의 시작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정교회를 통해, 특히 선교에 관련된 많은 사역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 그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연단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파송교회의 허락 하에 예수전도단의 훈련

을 받게 하셨고,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연약함 가운데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세계선교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지금 속해있는 싼띠팝국제선교회(S.M.I.)에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013년 4월 전주양정교회의 파송을 받아, 지금 이곳 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아들(희랑-7세, 희웅-6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양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염려와 달리 태국 안에 몇 안 되는 크리스천 현지인 학교를 허락하셔서 현재 아이들도 이곳 현지 언어인 태국어를 배우며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G.M.S.(세계총회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의 규정상 태국에서의 사역은 팀 사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 가정도 태국 안의 팀 가운데 싼띠팝국제선교회(Santiphap Ministry International, S.M.I.)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싼띠팝국제선교회(S.M.I.)는 하나님께서 태국선교를 위해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중부교회를 통해 1992년 김정배 목사(대전중부장로교회 파송)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6천 7백만 태국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국 77개 도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되어지고 있습니다. 싼띠팝국제선교회(S.M.I.)의 사역 목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99%에 해당되는 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싼띠팝국제선교회(S.M.I.)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역자로 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 이국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저희 가정을 파송할 무렵 담임목사님과 선교회에서 결정되어진 저희가 정의 사역은 첫 텀(6년)은 방콕에 머물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고, 신임 선교사의 환영 및 영접과 적응을 도우며, 방콕 안에 선교센터를 관리하고, 싼띠팝방콕교회를 뒤에서 도와 세워주는 사역을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곳에 온 이후 선교회 전체 회계를 담당하여 재정을 맡았으며 지금까지 들어온 세 유닛에 대해 영접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아직 신임 선교사이기에 무엇보다 첫 2년간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사역은 언어공부입니다. 들어 온지는 1년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선교회의 필요에 따라 현재 9개월 동안 언어공부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 12월초에 있을 예정인 태국어 시험을 위해 기도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태국어이고, 또한 왕에 대한 언어가 다르기에 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도 다시금 왕의 언어를 공부해야하는 수고함이 필요하여 더욱더 힘을 가해 언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님들

저는 중부교회 선교원에서 성경을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신앙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부교회를 통해 선교를 알게 하셨고, 중부교회의 추천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이렇게 낯선 땅에 나아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01 언어공부의 진보를 위해
02 교회를 개척할 개척지와 현지인 동역자를 위해
03 현지인들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04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장학사업

글 · 이은희 기자

이번 호에서는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장학사업으로 헌신하고 있는 장학사업부를 찾았다.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진봉덕 집사님을 만나 장학사업부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먼저 장학사업부를 소개해주시겠어요?

A. 네. 우리 교회 복지사역국 안에 있는 장학부서로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그리고 교육전도사님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전달하나요?

A. 1년 중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씩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중등부 학생 5명, 고등부 학생 5명, 청년부 학생 5~7명을 선정하고, 우리 교회의 교육 전도사님까지 포함하여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추천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송촌고, 명석고, 동아마이스터고, 우송고 등 4개 고등학교에서 2명씩 대상 학생을 추천 받아 총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을 돕고 있네요. 그러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학사업이니만큼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돌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 내 대상자 추천은 교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학생을 우선시 하고 있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인근 고등학교에는

공문을 보내어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하게 합니다. 이에 근거해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A. 네, 재정은 교회 자체의 예산이 있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하나라도 더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이 채워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죠. 솔직히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마음이 간절합니다.

Q. 끝으로 이 지면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장학사업부의 장학사업은 교회내의 학생들은 물론, 이웃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주어 더욱 열심히 배움의 길을 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 이웃과 함께하는 장학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사실 기자도 오늘에서야 장학사업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문서홍보부에서 첫 취재를 하며 교회의 장학사업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 마음 뿌듯하다. 이런 좋은 일들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헌금을 많이 해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르신 옛이야기 동아리 '돋을볕'을 만나다

글·박진화 기자

법동 안산도서관에는 어르신 옛이야기 동아리 "돋을볕"이 있다. 아이들에게 인형극 공연을 펼치고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동아리이다. 동아리 취재를 위해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안산도서관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공연에 직접 찾아가 보았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만나 뵌 박혜자 회장님, 인사를 드리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반겨주셔서 친정엄마를 만나는 것 같은 가슴 따뜻함이 전해왔다. 공연장소에는 이미 4~5개 정도의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로 꽉 차 있었고, 회장님의 간단한 공연 소개를 마치자 곧 공연이 시작되었다.

'금도끼 은도끼'와 '굴러가는 떡시루 잡기' 두 편의 인형극이었는데, 할머니들의 구수한 목소리와 음향 효과, 그리고 매끄러운 진행과 인형들의 연기력이 정말 수준급이었다. 그것은 인형들을 움직

이시는 돋을볕 회원님들이 단순히 인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 인형과 함께 연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니 당연한 게 아닌가 싶었다.
3~4세 정도의 어린이집 아이들인지라 두 편의 인형극을 차분히 앉아 감상하고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였는지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끝까지 집중하기도 힘들어 했지만, 공연은 잘 마무리되었고, 어린이집 아이들과 기념촬영도 기쁘게 응해 주셨다.
회장님을 비롯한 돋을볕 회원님들과의 잠깐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Q. "돋을볕"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돋을볕"은 '아침에 처음 돋는 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 회원들이 모두 60세~70세거든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있지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Q. 처음에 모임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A. 안산도서관에서 어르신 옛이야기 동아리를 모집해서 2009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Q. 회원은 몇 명 정도이고, 모임은 언제 하시나요? 그리고 회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A. 처음에는 회원이 4~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회원이 10명입니다. 모임은 매주 수요일 안산도서관에 모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은 모두 60~70대예요. 참고로 나(박혜자 회장님)는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이가 가장 많아서 회장이 됐어요.(웃음)

Q. "돋을볕"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매주 모여 스터디를 해요. 주로, 강사를 초빙하여 인형극과 인형 만들기, 동화 구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공연을 안산도서관에서 합니다. 상반기에 인형극을 네 번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에요. 이제 하반기에는 9월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옛이야기 들려주기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보람과 힘든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A. 보람은 정말 많죠. 예쁜 아이들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사회에 봉사도 하고 내 자신한테 배움의 기회가 되어 지혜가 열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점은 무엇보다 경비조달 문제지요. 회원들끼리 한 달에 만원씩 회비를 내고, 평생학습원의 동아리 지원비를 받기도 하고, 작년에는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수상하여 상금 70만원을 받아 활동했어요. 주로 인형제작이나 강사료, 인형극 녹음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Q. "돋을볕"을 모르시는 지역 어르신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A.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정에만 있으면 뒷방 늙은이 되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안산도서관에 나오세요. 그래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형극을 위한 인형을 직접 만드시고 녹음도 하시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힘드시지는 않은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는 내내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그 열기와 열의 때문에 연세를 잊게 만들어 질문을 뒤로 했다. 그리고 회원 모두가 내 동아리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었다.
돋을볕 총무님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안산도서관과 늘 가까이서 힘이 되어주신다는 안산도서관 오민영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한 잊지 않으셨다. 공연 시작과 끝을 함께 챙기시던 오민영 선생님은 "아니에요, 감사라니요~ 우리 어머님들, 예쁘게 나온 사진 많이 실어주세요."라며 돋을볕 동아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다.
동아리 소개한 책자가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노후의 삶이 사회의 주역에서 밀려난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 학습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며 살아간다면, 나도 저렇게 연세가 있어도 소녀처럼 맑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안산도서관처럼 지역 어르신들의 잠재력을 지원하고 삶의 기쁨을 선사하는 지역 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으로 이 동아리의 건승을 빌어본다.

우리 이웃 방앗간을 찾아

글·신신혜 기자

평화 떡 방앗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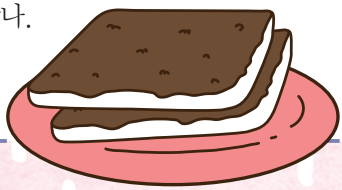
신도시장 내 전통을 자랑하는 방앗간이 있다. 22년간 신도시장이 생기기 전부터 터를 잡고 있었던 바로 '평화 떡방앗간'이다.

신도시장 뿐 아니라 가양동 이 일대의 변천과정을 22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지내오셨다고 한다. 22년 전만 해도 이 가양동 일대는 대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를 회상하면 하루 24시간 방앗간을 돌려도 모자랄 정도로 분주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믿음생활을 하시던 오향순 권사님은 결혼을 하셔서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고 계신다. 방앗간을 하시면서 자녀분들을 키우고 가르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와 자녀분들과 예배로 시작하셨다고 한다. 주일이면 주문도 평일보다 많다보니 1분 1초가 아까울 수도 있었지만 주일성수가 먼저라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할 수 없었기에, 가끔은 손해 보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그 보다 더 값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생활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방앗간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거리도 줄지 않았어. 항상 잘 되기는 힘들잖어. 근디 주님의 은혜여. 항상 잘 됐어. 지금도 그랴."소박하신 권사님의 웃는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진다.

어떤 떡이 가장 자랑할 만하냐는 질문에 옆에서 떡을 고르던 손님이 "다~ 다 맛나 특히, 송편이 최고여. 그리고 인절미두 참 맛나. 안 맛난게 없어! 다 맛나다고 써 잉!"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매일 여기 떡을 사서 드신다고 한다.

방앗간 안쪽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빙 둘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신다. '평화 떡방앗간'은 그냥 방앗간이 아닌 이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다. 인심 좋고, 사람 좋은 권사님 덕분에 어르신들은 이곳에 자주 모이셔서 떡도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신다고 한다.

자녀분들에 대해 여쭤보자 지금은 다 출가해 각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방앗간을 큰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신다. 오랜 세월 해 온 이 방앗간 일을 큰 아들이 함께 해 주고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모른다고 하시는 권사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부르시는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평화 떡방앗간'을 찾으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기도해 본다.

머슴방앗간

교회 주차장 옆 서울슈퍼 앞에서 신도시장으로 내려가면 생선가게와 두부가게를 지나 '머슴방앗간'이 있다. 바로 이숙자 집사님이 운영하는 방앗간이다.

방앗간이라고 하면 떡도 함께 하기 마련인데 이곳은 방앗간만 하신다. 전문적인 방앗간인 셈이다.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고춧가루며, 참깨, 미숫가루를 보니 집사님의 정갈한 성격이 보인다. 방앗간 안쪽에는 고춧가루 분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앗간에 필요한

기계들이 있었고, 오랜 세월 함께한 도구들도 눈에 들어왔다.
17년 동안 이 자리에서 '머슴방앗간'을 운영해 온 집사님은 서울에서 살다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자녀는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은 지금 군복무 중이고 작은 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방앗간이면 떡도 하기 마련인데 왜 방앗간만 하냐는 물음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방앗간만 하고 있다고 한다. 고춧가루를 빻는 데는 여느 방앗간 보다 잘 한다는 자부심과 국산 고춧가루를 고집하신다고 한다.
시장을 들어서면 방앗간도 떡집도 여러 곳이지만 고춧가루를 낼 때는 이곳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집사님의 차분하고 정갈함이 방앗간 구석 구석 녹아져 있는 것처럼 방앗간 안은 참 정갈하다.
방앗간 일을 하시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은혜로 넘쳐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투명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빨간 고춧가루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다.
고춧가루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산만을 고집하는 '머슴방앗간'에 가보면 좋을 듯하다. 조용하게 웃어주시는 이숙자 집사님의 마음이 전해져 온다.

종로떡방

삼호아파트 정문 앞에 떡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로떡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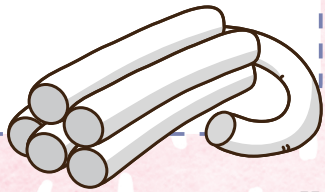
떡을 좋아해 시작한 이래 15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송정래 성도의 떡집이다. 결혼을 해 서울에서 2년 정도 떡집을 운영해 오다가 시댁과 고향인 전라도와 중간 위치를 찾다보니 대전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신앙생활은 이 곳 대전에 오면서 단골손님이었던 조숙희 전도사님의 지속적인 전도로 인해 대전중부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다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마음속에 찾아와 위로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중요시 하지 않았던 주일예배와 새벽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남편까지 교회에 등록하면서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함이 크다고 한다.

자신 있게 손님들께 권할 수 있는 떡은 시루떡, 인절미, 영양떡, 바람떡 등등이며, 손님들은 다 맛있다고 한다. 가게를 하면서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해서 더 맛있는 떡으로 보답하고 있다.

떡집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고 지금은 그 아들들이 사회인로 또 대학생으로 잘 커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목장 식구인 김기환 권사님과 김순남 집사님이 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송정래 성도님!

'종로 떡방'가득, 떡 찌는 하얀 연기가 맛있게 피어나는 오후! 송정래 성도님의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차고 넘친다. 그 아름다운 미소가 이곳을 찾아 떡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해 본다.



삶의 귀한 선물 "만남"

글·이은희 기자

유월의 꽃향기가 가득한 날! 바람이 전해주는 꽃향기를 따라 그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이야기 한다. 이준희 집사와 서정자 집사는 보기와는 다르게 쉰을 훌쩍 뛰어넘은 나이로 토끼띠 동갑이다. 그리고 김순남 집사는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두 집사와의 관계가 친언니와 동생 같았다. 이들의 만남은 아무래도 "동안"들의 만남이 아닌가 싶다.

5년 전 할렐루야 성가대로 만나, 서로를 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비슷함을 느끼게 되어 어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준희 집사가 있었다고 한다. 가끔씩 집으로 초대를 해 식사를 대접한다는 이준희 집사. 음식 솜씨 또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서로 먹을 것이 있으면 챙겨주고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만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좋은 곳을 가게 되어도 맛난 것을 먹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단다. 서로의 칭찬 속에 꽃향기가 묻어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본다.

이준희 집사가 전하는

여유로운 미소 속에 겸손함을 지닌 김순남 집사

김순남 집사님은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 하시다. 추우나 더우나 기도원으로 교회로 다니시며 꽃꽂이로 봉사하시고 또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직장 선교에 앞장서며 해외선교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

한 아파트 앞 동에 사셔도 서로 바쁘다 보니 주일날 교회서 뵙거나 어쩌다 목장예배 때 뵙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여유로운 미소와 겸손함이 배어 있으시다. 주일날이면 내가 게으름 피워서 성가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보면 늘 먼저 와 계시다. 그런 김순남 집사님을 뵈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내게는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긴다. 친손자와 외손자들도 다녀가는 날들이 있어도 한번 힘들다 피곤하다 안 그러시고 늘 마음이 평안해 보이신다.

김순남 집사님이야 말로 정말 주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나도 나이 더 들어 저렇게 후덕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곱게 늘고 싶다. 목장일도 교회일도 아무봉사도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김순남 집사님은 또 인정도 많으셔서 주일날이면 맛있는 것도 가끔 해 오셔서 찬양연습 전에 입을 즐겁게 해주신다. “집사님, 언제까지나 주안에서 건강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김순남 집사가 전하는

예쁜 미소로 사랑을 전하는 서정자 집사

서정자 집사님은 우리교회 아름다운 꽃이며, 소중한 보화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없이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딸로 살아가는 집사님 곁에는 어디에서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이신순(남편) 집사님과 멋진 아들 재민이가 있어 더욱 밝은 미소로 남을 배려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런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늘 부러워도 했답니다.
오랫동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다 카페 일을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도 섬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께 늘 베푸는 것을 좋아하며 예쁜 미소로 사랑을 많이 전하는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빕니다.

서정자 집사가 전하는
win-win 긍정의 마인드
이준희 집사

나의 삶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준희 집사를 만나게 된 것은 할렐루야 성가대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이준희 집사는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솜씨가 좋은 친구. 헐... 쪼매 거시기 하다, 잉~~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친구. 사람들과 win-win할 줄 아는 친구. 가정과 일터를 오가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쁘고 감사하다고 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이 얼굴은 늘 환하게 웃고 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이야기를 누눌 때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감싸고 덮어주는 마음씨 따뜻한 친구. 그래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난 음식을 차려놓고 부부가 집으로 초대해 음식 대접하기를 즐기며 나누기를 즐기는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담임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설교하신 것이 마음에 와 닿고 공감하게 된다.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돌보는 일. 이준희 집사님 부부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가? 이런 주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다. 칭찬릴레이를 하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칭찬하니 내가 기쁘고 행복해짐을 느낀다. 좋은 만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는 삶의 귀한 선물은 만남이고, 만남은 곧 축복이라고 전하고 있다. 웃음소리까지 닮은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글 속에서도 배려함과 따뜻함이 묻어나고 있다. 만남은 나 혼자서 만들 수 없지만 서로 함께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행복! 기쁨인 것이다. 유월의 향기로운 꽃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그들의 만남이 동행의 기쁨으로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Blessing

숲

정희성

숲에 가 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사진 유월 중순 비 갠 후, 선자령에서(김용수 기자)

푯대를 향하여!

글·윤종명 집사

저는 충남 부여 출생으로 6남매(3남 3녀) 중 위로는 누님 두 분과 형님 한 분 그리고 저와 아래로 남, 여동생으로 시골의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유교적 사상의 교훈으로 성장하였지만 비교적 개방적이고 3형제 중 동네에서나 부모님한테도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장남 선호 사상이었는지 교육 열의 때문인지 형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시키셨고 당연히 집안일은 제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6~70년대 농촌 근대화의 정책으로 산림 개간, 과수원, 담배 농장 등 밭에 일하는 인부들이 매일같이 2~30여 명씩 되는 바쁜 나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소나 염소 풀 먹이기, 농장에 나가 부모님 심부름 등 바쁘게 돌아가는 가정환경 탓에 마음 놓

고 아이들과 공차기 한 번 할 여유도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과수원에서 사과, 배, 밤나무의 접목과 가지치기, 논 밭 가는 쟁기질을 했습니다. 소달구지 끌고 30리 길 논산 5일장에 쌀 싣고 다녔던 기억은 지금도 스스로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시 30여분 거리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발표하던 친구들을 볼 때면 나와는 전혀 다른 동경의 대상이었고 정말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큰 종이에 쓰여 있는 차트를 넘기며 북치고 장단에 맞추어 찬송 부르던 기억은 유년시절의 추억으로 밀려옵니다.

75년도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11월 과도한 농사일과 과수원 운영이 간에 무리가 되셨던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우리 3형제 불러 모으시고 우리 가정에 채권 채무와 형제간의 사랑을 유언하시며 부고 낼 주소록까지 손수 작성해놓으셨던 정말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며칠 동안 목 놓아 울며 지냈습니다.

가정환경으로 늦게 대학에 진학한 터라 군 입대 연기가 되지 않아 1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여산 제2하사관학교에서 함박눈이 내리던 날 진중세례를 받았고 군 생활 중에도 본부 서무계, 부 인사계, 내무반장, 본부 군종 사병, 교관 등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비교적 인정받고 군 체질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으니 정말 장교로만 입대하였어도 군 생활 더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 제대 후 복학하여 다져진 의지력으로 공부나 열심히 하고자 하였으나 과대표를 거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대학시절 여자 친구도 사귀어보고 싶었으나 학생회장이란 직책과 복학생으로서 결혼문제까지 생각되어 솔직히 연애다운 연애도 못해본 것 같습니다

사업관계로 학교에 출입하시던 처 고모부께서 조카사위로 눈 여겨 보셨던지 예쁜 조카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지금의 아내 전숙인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자양동 학교 앞 어느 다방이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하는 평안함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있었기에 주말이면 공주 마곡사, 용인 자연농원 등 많은 곳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함께 사진 촬영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내였기에 조급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 붙여 그해 84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약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17일 결혼식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소개를 하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부부 연을 맺게 해주신 정말 현숙하고 지혜 있는 아내 전숙인 집사와, 이미 가정을 이루어 예쁜 외손자를 안겨준 예쁜 딸 소연, 군 제대 후 복학하여 법대생으로 재학 중인 사랑하는 아들 재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성격은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의협심이 강하나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 탓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성급하고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까요?
저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였기에 87년도부터 전문 건설업을 시작하여 활발한 사업수주로 대전 충남 30~40여개 되는 사업체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충남제일장로교회(현 주향교회)에 출석하면서 와이즈멘 클럽, 라이온스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세상일들과 함께 분주하게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92년 대전 굴지의 한국철강에게 대여해 준 어음으로 타의에 의한 부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써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올라오는 새싹을 자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 속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양도양수절차를 마치고 다시 당좌개설을 신청하는데, 당시 주거래 충청은행 당좌 계 대리가 전화하여 “몇 억 주고 뺐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여 은행 지점에 들어서는데 지점장이 “재수 있는 사람은

물속에 빠져도 붕어를 물고 나온다더니"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전산망을 확인하고 저의 머릿속은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국 은행 온라인 전산망에 충청은행본부에도 저의 부도 기록이 누락된 것입니다.
은행장이 우리 가족인들 어찌 지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족함을 회개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설사업장은 원만한 성장을 지속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의 자만심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좇아 95년 민자당 대전시의원 후보로 참여하여 낙선을 경험하고 사업장마저 제2의 부도를 맞이하게 되어 3만여 평 부동산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말이 부도이지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책하고 비관하며 부족함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그분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당시 성모초교 4학년인 딸과 동대전초교 1학년인 아들을 처갓집 동네인 광주로 전학시키게 되었고. 명절날 대전에 다니러왔다 떠나는 날이면 자녀들을 버스터미널에서 배웅하며 차 속에 혼자 남아 얼마동안 울었던 아픈 기억들이 눈에 선합니다.
10년 동안 광주를 오가며 저 자신을 많은 것으로 단련시키시었습니다. 제자, 사역 훈련을 통하여 더욱 사명자로 성장시키시었고, 일주일에 세 번씩 광주를 오가며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찬송하며 눈물 콧물로 기도하던 기억은 저의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 소개할 순 없지만 단련과 훈련 속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어 더 큰 사업장을 주셨지만 순간, 순간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저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세 차례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였지만 역시 실패하고 그분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고난과 역경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 '(주)어울림'은 작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에 따라 더욱 낮은 모습으로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담임목사님 말씀을 따라 나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글 · 조미옥 사모(최요셉 목사)

사역자 가정의 달달한 러브스토리를 듣고 싶다며 '함께'지에 사모의 글을 써달란 제의를 받고 약간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며 행복하기도 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불꽃이 튄 것(?)도 아닌데……. 달달한 러브스토리라...

우리 부부의 첫 만남의 장소는 오산리 기도원이다. 난 '낙도 · 오지 선교회'에 M.T 때문에, 남편은 군 제대 후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처를 찾아보고 복학 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오게 되었었다. '낙도 · 오지 선교회'는 총신을 주축으로 여러 학교 학생들이 6~8명씩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낙도와 오지에 일주일간 단기선교를 가는 모임이다. 난 세 번째 가는 단기선교로 그동안 계속 준비 중이었고, 남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낙도 · 오지 저녁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남편은 우연히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와 같은 조 형제님의 친구였던 것이다

그 때 나는 남해의 '조도'라는 섬에 가기로 되었는데, 마침 남자 형제가 부족하고 낙도 · 오지 선교에 딱 맞는 신체 조건을 가진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섬에 가면 힘쓸 일이 너무 많기에 잡아야 했고 결국 같이 가게 되었다. 사심은 전혀 없었다.(믿어주세요~)

남편은 이렇게 낙도 · 오지 선교회에 발을 디딤으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방학 때마다 참여하고 임원으로도 사역하게 되었다. 단기선교 이후로 몇 달에 한 번씩 후기모임을 하며 가끔 얼굴 잊지 않을 정도만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사역자는 절대 결혼상대가 아닙니다.'라고 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무뚝뚝하고 북극곰처럼 생긴 신학을 공부하는 남자를 서서히 사랑하게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셨다. 사모가 되기엔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었다. 가끔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기도원을 잘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너~무 사랑하셔서 축복을 부어주시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갑절의 축복으로) 딸 둘! 아들 둘! 환상적인 숫자다. 예린(12), 예영(9), 예준(7), 예성(4). 하

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기만 하다. 자녀를 키우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부모님의 마음을 진하게 깨닫게 하셨다.

물론 자녀가 많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분주하고 힘이 들기도 하며 단골 병원이 꼭 필요하기도 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평신도만큼도 안 되게 바닥으로 내려감을 맛 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웃음은 끊임없으며, 행복은 배가 되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를 하며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 "최 목사 가정 때문에 내가 기쁘구나."라고 하시길 원한다.

우리 가족은 '주의 친절한'으로 시작되는 찬송가 405장을 좋아한다. 주의 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찬송이라서 가정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둘러 앉아 박수치며 부르는 곡이다. 우리 가정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 또한 평안하며 즐겁게 지내다 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기도로 중보해주시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 그 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며,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최요셉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길 원하며, 돕는 배필로 주신 조미옥 사모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길 원하며, 축복의 자녀 예린, 예영, 예준, 예성이는 이름의 뜻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자라게 하시며, 주의 나라 위해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전중부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해주실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중보 기도의 힘이 더할 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것이며, 우리 가정 또한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다. 대전중부교회에 역사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대된다.

연합 회복수양회

대전지역 9개 교회 '연합 회복수양회'가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무주 반딧불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9개 교회는 각 교회의 셀 리더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씩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겨울 훈련은 각 교회에서, 여름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훈련프로그램에는 그동안 500여 명이 참여해 매 주일마다 5주 동안 훈련을 받아 왔었다. 이번 수양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4년 여간 해왔던 연합사역의 열매였다.

이번 수양회에는 내적 치유를 목표로 22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찬양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내려놓고 회복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에 대해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전의 건강한 교회로 모범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늘 주변 교회들을 섬기고 지역을 품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연합을 더욱 활기차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4 사랑의 선교바자회 개최

올 해로 9번째 맞이한 '2014 사랑의 선교바자회'가 지난 5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제1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바자회는 우리 교회 선교국의 주관으로 교회 내 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바자회를 위해 교회의 각 부서들은 각각 부스를 설치하고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과 구매물품 등을 판매하였다. 품목은 의류, 음식, 양념류, 일반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바자회 장을 찾아 먹거리를 즐기고 필요한 물품을 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200여명의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교인들은 순수한 선교지원과 선교사 후원이라는 바자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번 '사랑의 선교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1천여만 원의 수익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 여름 파송하는 단기선교팀을 위한 지원과 단기선교팀들이 방문 협력 사역을 펼치게 되는 현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2014 한마음 중부 찬양제

'2014 한마음 중부 찬양제'가 지난 5월 25일 대예배실에서 개최되었다. 개최 한 주 전 치러진 열띤 예선의 경쟁을 뚫고 총 10개 팀이 이 날 본선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 모두 열심히 준비하여 예선 때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각자 뽐내었다.

이번 찬양제는 '늘푸른청년회'의 문지웅 형제, 조은혜 자매가 사회자로 나서 풋풋하고 발랄한 진행이 이어졌고, 참가한 팀들은 각 목장, 교구, 전도회, 중고등부, 청년회, 목자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모여 출전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팀을 이룬 모습에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조화가 돋보인 찬양제였다.

아이들과 사모들이 함께 찬양과 율동을 펼친 사모목장팀, 목자들의 단합을 보여준 3교구 목자팀, 하나 된 모습으로 율동을 선보인 늘푸른청년회팀, 분홍 스카프로 통일한 권사회팀,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총동원된 중리목장팀, 녹슬지 않은 기량을 펼쳐 보인 예사랑팀, 강렬한 붉은 블라우스로 하나 된 5여전도회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 중고연합찬양대팀, 알프스 하이디로 돌아간 1교구 목자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을 가양2-3목장팀.

이렇듯 다양한 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가운데 가장 음악적 아름다움을 보여준 예사랑팀이 우승을 하였다. 하지만 참가한 모든 팀들과 또 자리를 함께한 우리 모두는 진정 한마음 되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청소년 뮤지컬 공연 'Are you happy?'

청소년 뮤지컬 'Are you happy?'가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초청 공연되었다. 선교극단 디아코노스의 청소년 뮤지컬 공연 'Are you happy?'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 내용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에 초청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날 공연에 앞서 각 반별로 목장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며 친목을 다졌고, 공연 관람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4 상반기 목장 총동원 파티

지난 6월 27일 금요일엔 각 목장별로 '상반기 목장 총동원 파티'를 가졌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가정교회로서의 목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각 목장들이 또 하나의 교회로 열심히 모임에 힘쓰고 있다. 이번 '상반기 목장 총동원 파티'는 이러한 목장 모임의 상반기 결산의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임에 참석치 못했던 목원들을 초청함은 물론, 태신자 전도까지 포함하여 각 목장마다 '총동원 파티'를 벌였고, 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14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지난 6월 29일 주일 오후 본 교회 만나홀에서는 '2014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을 초청하여 환영회를 갖는 시간이었다. 이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과 인도자, 그리고 새가족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 모두 함께 한 가운데 환영회가 진행되었다. '드림워십'팀의 공연에 이어 새가족 분들의 간증 시간이 있었고, 이후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상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한다.

새 얼굴, 이은희 기자

문서홍보부의 회계를 맡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접하게 된 문서홍보부. 단순히 회계의 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기자로서의 활동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나는 무척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교회의 일꾼들을 알게 되고, 한 분 한 분 알아가며 저에게도 주님 안에서의 가족이 형성이 되어 가는 듯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저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는 주변 분들과 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부 가족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늘 주님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 축복 속에서 생활하시는 중부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아인이네

김아인(7세.유치부.경배와찬양)

아인이는 김상복(남.가양1목장.주차봉사팀)집사와 이선미(가양2-1목장.유아부)집사의 첫째 딸이다. 동생 가은(4세.유아부.경배와찬양)이와 함께 경배와찬양팀에서 몸치, 박치,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찬양과 율동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인이는 장래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다. 예쁘고 똑똑한 아나운서 언니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아빠 김상복 집사님은 주일이면 주차봉사팀에서 섬기며 신도시장 내 창성육계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야에서 교회의 필요한 부분을 작으나마 채워드릴 수있음에 감사하다고 한다. 또 엄마인 이선미 집사님은 전)청년회 간사를 거치면서 결혼과 동시에 젊은 집사님들과 더불어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지금은 유아부에서 주님의 자랑인 아이들을 말씀안에서 양육하고 있다. 말씀안에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이 귀한 가정은 아이들이 지금처럼 밝게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한다. 또한 사업체인 창성육계가 더 번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한다. 아인이는 웃는 모습이 너무 밝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을 받을지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 닮고 사랑하며 살고 주님만 섬기도록 나는 기도해요~~” 조그만한 입으로 찬양을 하는 아인이를 바라 보시는 그 분의 인자하심과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친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요!

2014년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일시 8월 14일(목)~16일(토)
장소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
주소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외로 596-28
(보은군 산외면 동화리 3-1번지)
전화 043-544-8803
www.songnisanalps.co.kr

대전중부교회 042-622-9991 www.jungbu.or.kr

※ 본지를 읽고 가져가셔도 됩니다.